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신 석 하 KDI거시금융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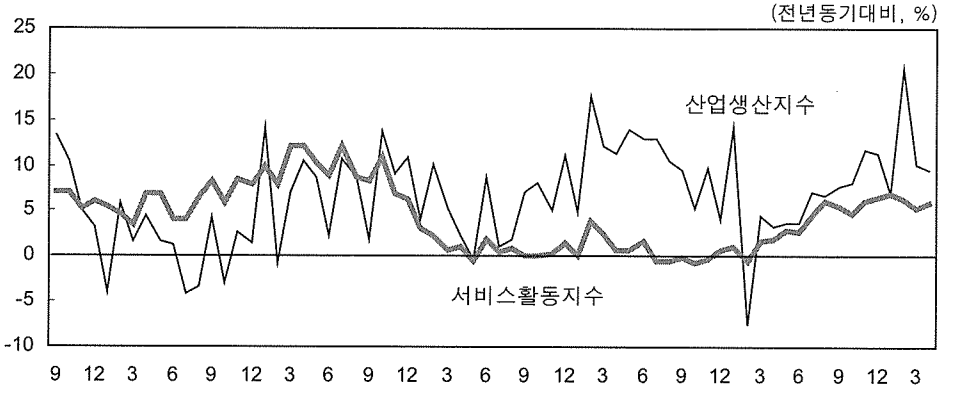
Ⅰ. 전반적인 경기 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고유가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내수 증가세 유지에 힘입어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지표에서는 경기상승속도가 조정되는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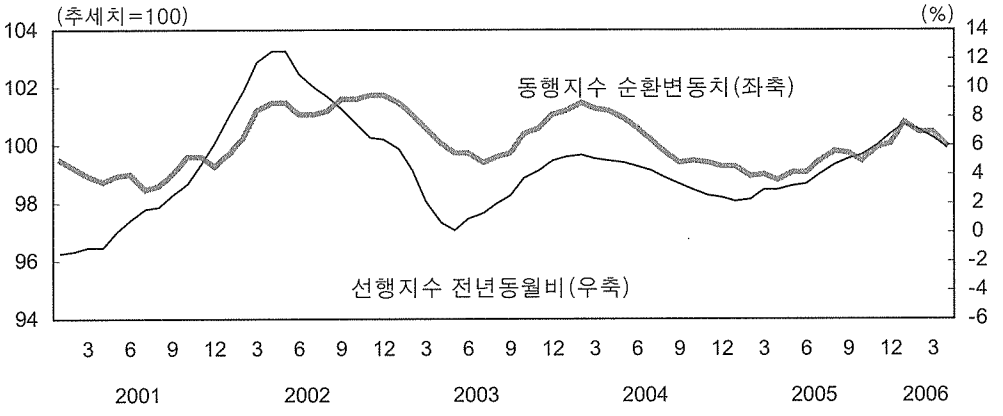
내수와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4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하여 전월(10.0%)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이는 주로 자동차 부문의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월중 서비스생산은 도매업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0%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개월 연속 완만히 하락

산업생산 및 서비스 생산 추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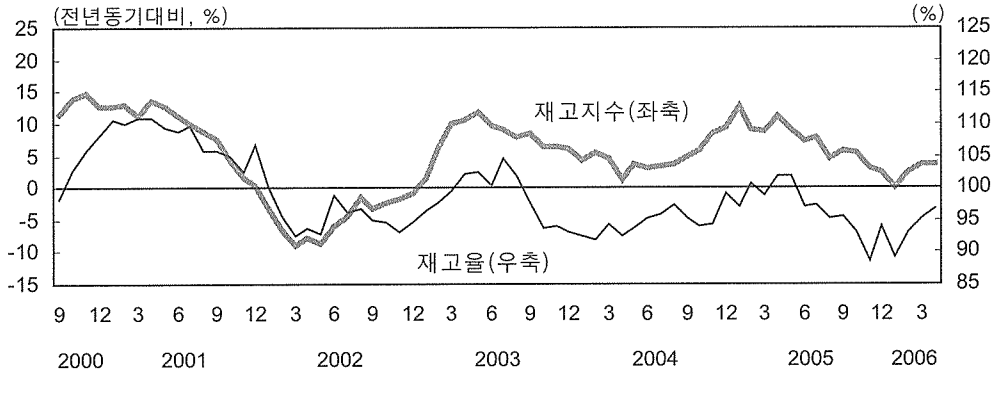


하여 경기상승 속도가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4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100.0을 기록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7%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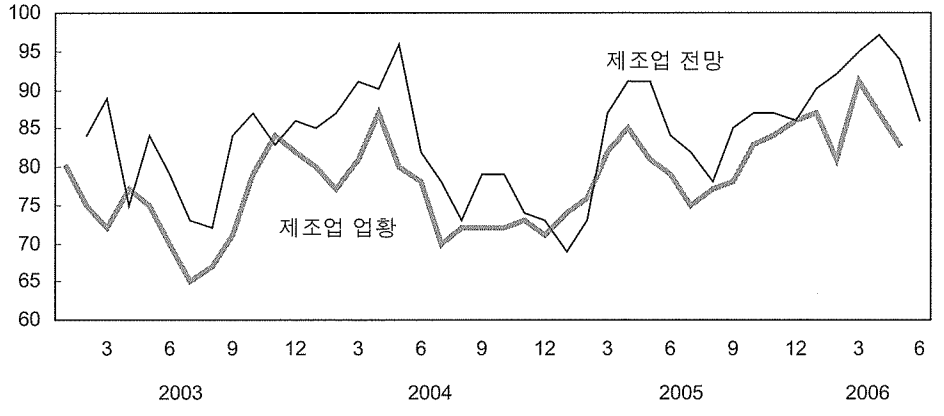
또한 재고 증가세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점도 경기상승 속도의 조정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2004년 4/4분기 이후 계속 하락하여 왔던 제조업 부문 재고 증가율이 금년 1/4분기부터는 확대되고 있다. 여타 부문에 비해 경기순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던 반도체 부문이 재고 증가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4월에는 자동차 부문의 재고도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하였다.

환율 및 유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와 소비자들의 심리지표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중 한국은행의 제조업 업황 BSI는 83을 기록하면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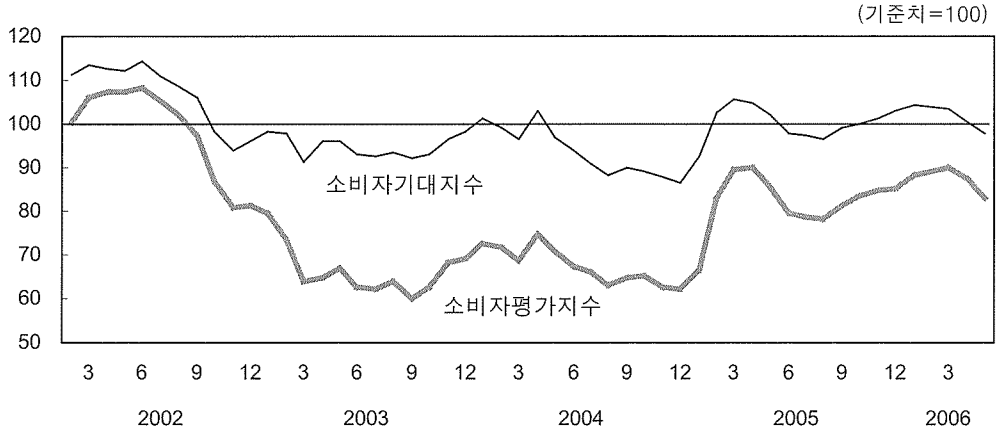
재고지수 증가율 및 재고율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은행)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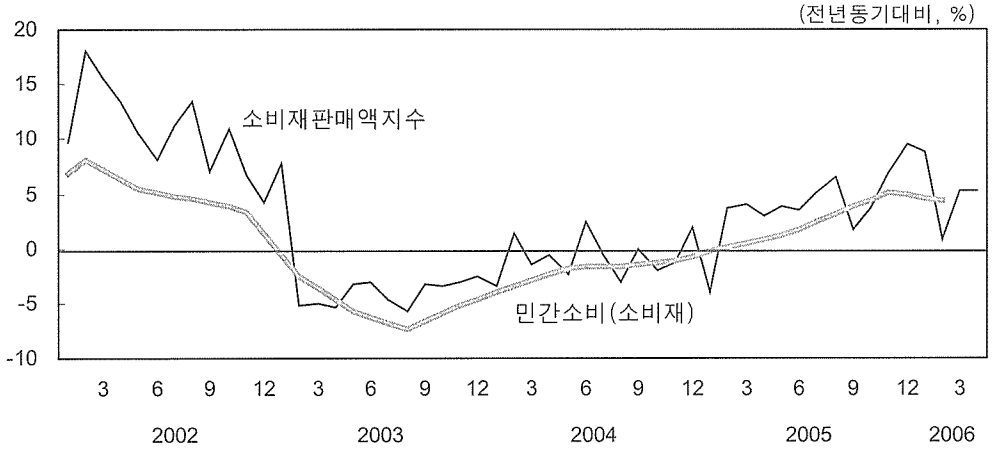
월(87)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6월 전망 BSI도 전월(94)에 비해 크게 하락한 86을 기록하였다.

또한 5월중 소비자 평가지수가 83.0을 기록하여 전월(87.2)보다 낮아졌으며, 소비자기대지수도 전월(96.4)보다 하락한 90.4를 기록하였다.

II. 부문별 동향 및 평가

소비 관련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4월에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구재 소비증가세가 둔

민간소비와 소비재판매액지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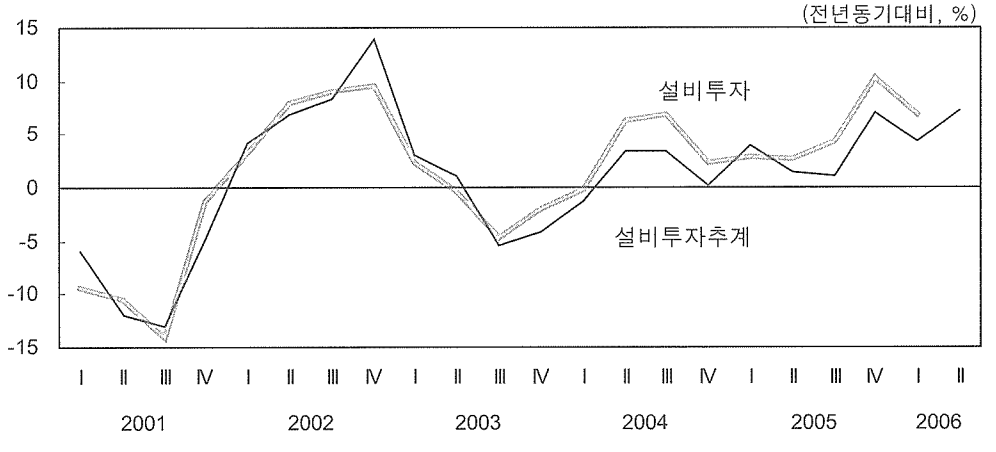


화되었으나, 준내구재·비내구재가 각각 8.9%, 3.0%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전년동월대비 5.2%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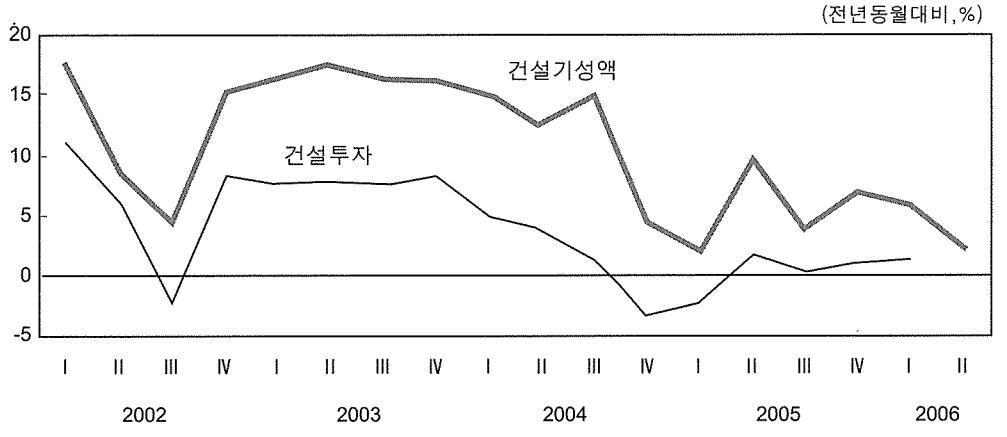
4월중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은 최근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여 전월의 9.6%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15.3% 증가하여 전월(-0.1%)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건설투자의 경우 동행지표와 선행지표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4월중 건설기성액은 공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추계 추이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액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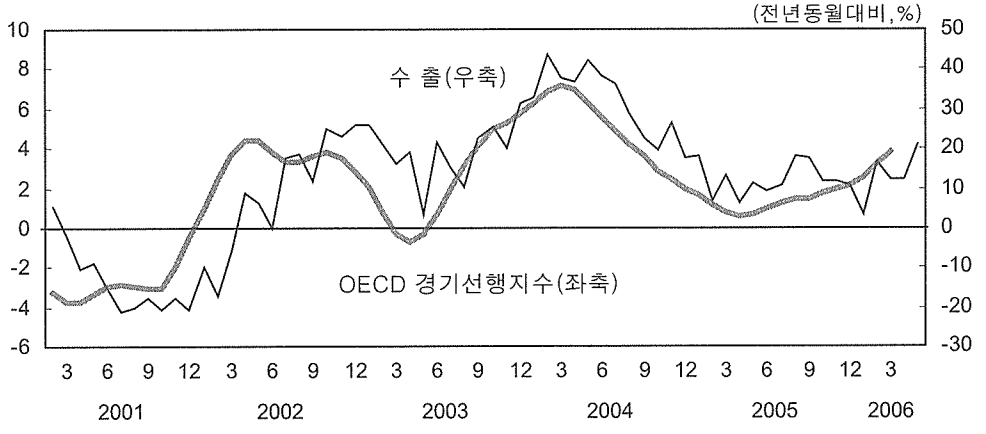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비중[1]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건설투자	1.00	0.4	-2.2	1.6	0.3	0.9	1.2	-	-	-
(계절조정)	-	-	(0.4)	(1.8)	(-0.8)	(0.0)	(0.6)	-	-	-
건물건설	0.59	-1.0	-6.4	0.6	-0.5	1.3	2.0	-	-	-
토목건설	0.41	2.4	6.8	3.1	1.5	0.4	-0.3	-	-	-
디플레이터	-	3.2	5.7	3.4	2.6	1.8	1.5	-	-	-
건설기성액[2]	1.00	5.7	1.9	9.6	3.8	6.9	5.8	9.2	5.9	2.0
공공부문	0.31	-1.0	-1.0	3.1	-6.6	0.4	-10.0	-12.8	-7.5	-4.0
민간부문	0.66	8.7	3.1	13.0	8.5	9.2	12.6	18.2	11.8	5.0
국내건설수주	1.00	9.5	22.3	38.5	15.8	-17.9	-9.7	22.2	-34.5	-18.8
공공부문	0.26	1.6	22.2	73.7	0.0	-26.3	-11.3	144.5	-39.3	-38.1
민간부문	0.70	16.2	18.3	30.9	29.1	-5.8	-6.0	-4.7	-30.9	-9.3
건축허가면적	1.00	-5.1	0.2	-1.0	-11.0	-8.2	13.0	32.3	10.8	-8.2
주 거 용	0.45	0.4	27.6	8.6	-4.7	-14.0	19.5	78.6	11.0	-14.8
상 업 용	0.21	-24.5	-30.8	-29.1	-25.7	-8.2	-0.9	-6.8	-5.9	-26.3
공 업 용	0.12	-7.9	-18.1	16.3	-21.5	-5.5	30.4	40.8	34.5	-2.8

주: 1) 비중은 2005년 연간 기준임.
2) 건설기성액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은 명목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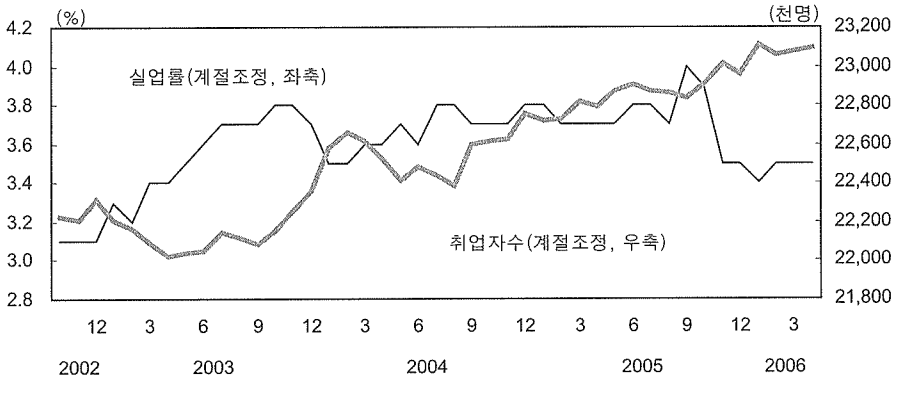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 수출



공부문의 감소와 민간부문의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에 그쳐 전월(5.9%)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4월중 전년동월대비 18.8% 감소하여 전월(-34.5%)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건축허가면적은 2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오다 4월에는 주거용과 상업용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2% 감소하였다.

수출은 5월중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유지에 힘입어 5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1% 증가하여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자수



한편 우리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OECD경기선행지수의 증가세가 최근 확대되고 있어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아직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4월중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과 동일한 0.1%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실업률도 전월과 동일한 3.5%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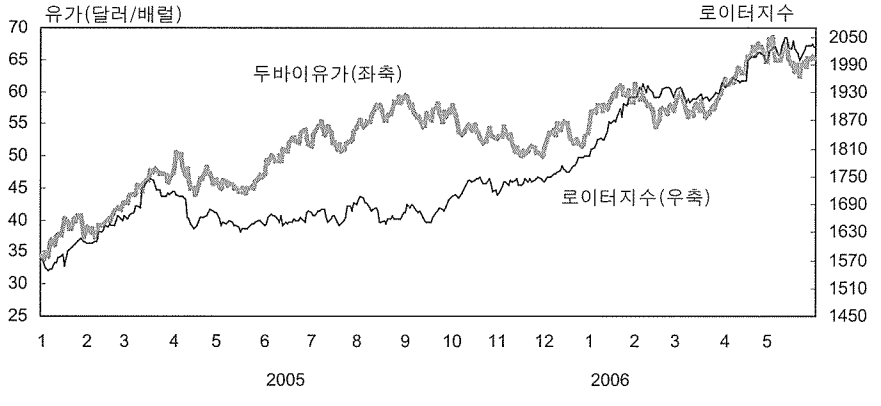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전월대비 0.2%, 0.3%의 안정된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3%, 근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여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경기도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사철이 마무리되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Ⅲ. 대내외 경제여건

미국경제는 태풍피해 복구가 집중되면서 1/4분기에 연률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향후 유가 상승 · 금리 인상 · 주택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상황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실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이 견실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 및 임금의 증가로 가계소비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도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추이



고 있다.

유로경제도 점차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민간소비가 등락하고 있으나 실업률이 지난 4년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과 기업투자가 호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긴축정책으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부문에서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인종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로 5월 초에 급등하였으나, 이후 미국 석유재고 증가 및 세계 석유수요 예측치 하향조정 등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유이외 원자재가격은 5월중 비철금속류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Ⅳ. 향후 전망

최근 경기상승속도가 조정되는 조짐은 있으나 2006년에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5% 내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경제가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6.2%, 계절조정 전기대비 1.2%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연간으로는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전년동기에 대한 기술적 반락요인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화가치의 상대적 상승추세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대외여건이 상반기와 같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세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다소 조정은 되더라도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므로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비투자의 회복세도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단기간에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6년에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도 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06년에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어 2006년에는 1%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출(물량)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IT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기인하여 1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상품수입(물량)은 내수회복, 환율하락에 기인하여 2005년보다 크게 상승한 11%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경기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2005년(3.7%)보다 다소 하락한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2005년(2.7%)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한편 내수회복, 환율 하락, 유가상승으로 인해 상품수입(금액) 증가세가 상품수출(금액)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05년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